“생명나눔 행복여정 30년, 행복나눔 미래 30년”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⑨

30돌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대종사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든든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미래 30년도 희망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불교계 유일 정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10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생명 살리기 불사’에 진력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30살 청년이 되기까지에는 이사장 두산 일면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원)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다. 2005년부터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일정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참석해 희망등록을 직접 권선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쉼 없이 달렸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일면 스님을 9월 9일 서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국에서 만났다. 일면 스님은 그간의 소회와 함께 앞으로 30년을 위한 계획을 풀어냈다. 〈편집자 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시작은 199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보자는 원력으로 몇몇 스님과 재가자가 뜻을 모았고, 제31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초대 이사장으로 한 ‘생명공양실천회’가 탄생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시절임에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오직 ‘장기기증’만을 위해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렸다.

법장 스님이 2005년 갑작스럽게 원적에 들면서, 일면 스님이 후임 이사장이 됐다. 일면 스님은 2000년 1월, 간 이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만큼 생명나눔의 산증인이었기에 의미가 컸다.

일면 스님은 1982년, 지속적으로 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스님은 당시 조계사 재무 소임을 맡고 한창 일에 빠져 있을 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1993년, 간경화 판정을 받았다. 회복 불가능하게 악화된 것이다. 젊었고, 또 종단의 주요직책을 맡아 한창 바쁘게 일할 때였다. 제대로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소임에만 열중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98년, 2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다. 1년 동안 1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 수차례, 얼굴은 검게 변하고 복수가 차올라 거동을 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주변을 정리하고 기도만 하며 세상을 떠날 날만 기다리던 중 스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뇌사 장기기증자가 나타난 것이다. 당시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았지만 앞에 기다리던 네 사람 모두가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스님이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다. 성공적인 간 이식으로 제2의 삶을 살게 된 스님은 마취에서 깨어난 순간 “남으로부터 덤으로 얻은 삶,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처음 이사장을 맡았을 때 2000여 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지금은 25만명이 넘었으니 수치상으로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기와 생명나눔 홍보,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을 위해 달려왔다. 많은 이들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환자치료비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돕기 등을 전개하며 생명나눔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일면 스님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눔”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30년 동안의 발자취에서 가장 큰 성과로 불교계와 국민들 사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것을 꼽았다.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8만명,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자는 6만여 명에 달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힘든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 것도 빠질 수 없다. 1200여 환자들에게 약 45억여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만 총 32명의 환자에게 약 8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연간 1억원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교육을 200여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생명나눔이죠”

일면 스님은 “미래의 희망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꺼져가는 희망불씨를 되살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제구호분야에도 첫발을 뗐다. 지난 4월, 캄보디아에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했고 7월에는 직접 캄보디아 현지에 방문해 지구촌 이웃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했다.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거듭 성장 발전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후원과 헌신을 잊지 않았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후원자, 봉사자, 직원 등이 생명나눔의 주인공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는 후원자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든든한 힘이다. 일면 스님은 “신도도 거의 없는 강원도 산골 한 사찰에서의 꾸준한 후원과 매체를 통해 연락이 온 동참자 등으로 매번 큰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기부천사’ 배수지 배우와 후원 어플인 ‘리매치앱’의 이현진 대표는 빼놓을 수 없는 후원자다. 배수지 배우는 2014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숭고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했고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에 5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해 겨울 진행하는 ‘따뜻한 정나누기 캠페인’에는 1억원이 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트롯 투표 리매치 앱 이현진 대표도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억3000여 만원을 후원했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내일은 국민가수’ 등에 출연한 가수의 팬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된 가수 이름으로 투표와 후원을 하면서 스타를 향한 팬들의 성숙한 응원 방법이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자비나눔으로 생명나눔의 30년 성과가 눈부시기에 앞으로의 30년도 기대를 모은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연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부터 희망이 만들어지고 그 희망으로부터 우리들은 행복해진다”면서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30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기념식

일시 | 불기 2068(2024)년 10월 12일(토) 14:00

장소 | 동국대학교 중강당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길 30)

행사안내
1부 오프닝 공연
기념사 및 격려사
표창장 수여
비전 선포식
본 행사의 1부는 TV, 라디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2부 문화공연
감사인사

※축하 화환 대신 쌀로 보내주시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좋은 날 잘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축복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시어, 3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문 의 02-734-8050